

기아 PV5, 전기밴 새 강자 부상 R&D·가성비로 ‘PBV 명가’ 도전

국내 판매 급증·수출 본격화
수출 확대로 글로벌 입지 강화
GM·포드 부진 속 존재감 확대
모듈형 플랫폼으로 활용도 높여
지속 투자로 PBV시장 선도 의지

기아의 최초 목적 기반 차량(PBV) 첫 모델인 PV5가 글로벌 전기 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 밴 시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상황에서 기아는 다양성과 확장성 그리고 가성비를 앞세워 판매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의 첫 PBV인 PV5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1814대 판매되며 전달인 9월(672대)보다 169.9% 급증했다. 수출 물량도 지난달 2632대가 선적되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 기아는 영국과 독일을 비롯해 일본 등으로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생산 물량 극대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최대 전기 밴 시장인 북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GM과 포드는 전기 밴 시장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최근 GM은 전기 상용 밴의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GM은 자사의 전기 밴 ‘쉐보레 브라이트트롭’을 생산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CAMI 공장을 전면 폐쇄하고 생산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GM은 캐나다 정부로부터 약 5000억원을 지원받아 현지 최초 전기상용차 제조 공장을 개장하며 주목받았지



기아가 2026년부터 일본 시장에서 판매할 PV5.

만 2년만에 생산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GM 측은 “브라이트트롭 밴의 수요가 예상보다 낮았다”며 “전기 상용차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해명했다.

포드도 전기 밴 시장에서 쓴잔을 들이키고 있다. 포드 전기 밴 E-트랜짓은 올해 2분기에 418대 판매되며 전년 동기 대비 88%나 급감했다. 특히 5월 한 달간 판매량은 단 97대에 그쳤다. 10월 판매량도 260대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1088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아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다양한 라인업 구축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아가 처음 선보인 중형 PBV PV5는 스케이트보드 기반 전용 전기차 플랫폼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모듈(어퍼바디)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PV5는 수요와 목적에 따라 승객용·화물용 밴과 하이루프 등 다양

한 차체 형태로 출시된다. 기아는 올해 PV5 카고와 패시저 모델을 먼저 선보였고, 향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 ▲사시캠 ▲오픈베드 ▲라이트 캠퍼 ▲내장/냉동탑차 등 다양한 파생 모델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또 2027년에는 후속 모델 PV7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목적기반차(PBV) 신차 출시와 관련한 R&D 투자도 줄이지 않고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승준 기아 재정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신사업과 신규 투자도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는 “현대차 그룹은 전기 밴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품을 출시하며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며 “특히 젊은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원팀으로 단단한 성장 이뤄내겠다”

‘통합 SK온’ 첫 CEO 타운홀 미팅

SK온이 5일 서울 종로구 관훈캠퍼스에서 SK엔부브와 합병 후 첫 최고경영자(CEO) 타운홀 미팅을 열고 ‘통합 SK온’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희 CEO를 비롯해 지난 3일 신규 선임된 이용욱 CEO, 김원기 SK엔부브 CIC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구성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용욱 CEO는 사자성어 ‘마부위침(磨斧爲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을 제시하며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글로벌 톱티어가 될 것이란 확신과 의지를 갖는 것”이라며 “꿈을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김원기 사장은 세계 점유율 1위인 SK엔부브의 사업을 소개한 뒤 “SK온과 SK엔부브는 자동차 생태계에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품질로 승부한 결과 전 세계 신차의 60%에 우리 유통기유가 들어 있는 만큼, 전동화 시대에도 액침 냉각, 열폭주 방지 기술과 같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품질로 SK온 배터리와 최대 시너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유정준 부회장도 이날 타운홀에 참석해 “SK온에서 지냈던 1년 6개월 동안 구성원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힌 뒤 “SK온 CEO 직에서는 떠나지만 SK Inc. 부회장으로서, SK아메리카스 대표로서 미국에서 SK온의 성공을 위해 전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특히 2009년 SK엔부브 초대 사장으로 겪었던 어려움과 성공담을 소개하고 “SK온도 훗날 위기를 극복해 후배들에게 무용담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오늘 내 시간을 잘 보내면 된다. 그게 하나씩 쌓여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석희 CEO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SK온이라는 우산 아래 지난해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에 이어 엔부브까지 한 식구가 됐다”며 “여러 조직이 한 우산 아래 모인 만큼 협력하는 ‘원팀’ 정신이 중요하다. 우리가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지가 우리 SK온이 얼마나 단단하게 성장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 AI로 완성한 모듈러 홈 첫선

LH와 공동 전시로 미래 주거 제시

삼성전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모듈러 홈 솔루션’ 사업을 국내에 소개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LH와 함께 ‘인공지능(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공동 전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는 최신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회로, 올해는 25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삼성 ‘모듈러 홈 솔루션’은 모듈러 건축에 최적화된 스마트싱스 기반 AI 홈 솔루션이다. AI 가전과 센서·조명·도어락 등 IoT 기기, 냉난방공조 시설, 에너지 솔루션, 환기 시스템 등 건축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기들이 스마트싱스

를 중심으로 연결돼 실내 환경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모듈러 건축과 함께 단기 방식으로 제공돼, 입주자는 입주 후 로그인만 하면 삼성전자 AI 홈이 제공하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일상을 바로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LH 전시장 내에 1인·2인 가구를 위한 51㎡ 규모의 쉽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주거 경험을 제공하는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구현했다.

방문객들은 현관, 주방, 거실, 침실, 세탁실 등 5개 공간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 ‘AI 홈’ 솔루션이 제공하는 ▲쉽고 편리함(Ease) ▲시간과 에너지 효율(Save) ▲나와 가족의 건강(Care) ▲강력한 보안과 안전(Secure)의 4가지 핵심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D, ‘기술 1등·원가혁신’으로 흑자 가속

파주 사업장서 ‘CEO 온에어’ 개최

“LG디스플레이의 연간 흑자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품질과 안전, 원가혁신, 고객만족도 상승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

LG디스플레이 정철동 사장은 지난 31일 파주에서 개최된 타운홀 미팅 ‘CEO 온에어(On Air)’에서 3분기 4310억원의 영업 이익 달성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성원에게 지난 3분기 경영 실적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등을 공유했다.

정 사장은 ‘영속하는 LG디스플레이를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 사장은 중세 시

대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성 외곽에 설계했던 연못인 ‘해자(壕子)’에 비유했다. 그는 “우리가 영속하기 위해서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모방하기 어려운 ‘우리만의 해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사장이 제시한 LG디스플레이만의 해자는 ‘T·C·Q·D·R’이다. 이는 ▲T(Technology, 기술 리더십) ▲C(Cost, 수익 구조) ▲Q(Quality, 품질) ▲D(Delivery, 공급 안정성) ▲R(Relationship, 고객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정 사장은 “Q·D·R은 기업의 기본 소양으로, 이 세가지를 토대로 T와 C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SK하이닉스

HBM 등 제품 15종에 글로벌 친환경 인증획득

4세대·5세대 HBM 인증 유일 기업

SK하이닉스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성과를 인정받았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15종 메모리 제품에 대해 글로벌 친환경 인증기관인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탄소 저감’과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SK하이닉스의 HBM이 환경적 우수성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됐다”며 “성능과 환경성 모두에서 글로벌 표준을 충족한 제품으로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탄소 저감’ 인증을 받은 HBM 제품은 ▲16GB HBM2E 8단 ▲16GB HBM3 8단 ▲24GB HBM3E 8단 ▲36GB HBM3E 12단 등 총 4종이다.

HBM 4세대(HBM3)와 5세대(HBM3E) 제품으로 이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SK하이닉스가 유일하다.

/차현정 기자

탄소 줄이고 자원은 다시 쓴다 금호석화, 지속가능 경영 강화

CCUS로 탄소 포집해 자원 재활용
폐기물 제로 공장으로 순환 강화
2050 넷제로 향해 전사적 실천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전 계열사에 걸쳐 환경경영 체계를 강화하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설비를 도입하고, 폐기물 매립 ‘0’ (제로) 인증과 친환경 원료 전환을 확대해 그룹 차원의 ‘3축 감축 전략’을 가동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여수 제2에너지가 폐기물 매립제로(Zero Waste to Landfill) 인증 골드 등급을 갱신했으며, 제1에너지는 신규 인증을 앞두고 있다. 향후 6개 사업장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탄소나노튜브(CNT) 관련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제도 개선에 기여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에는 발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K&H특수가스를 통해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CCUS 설비를 구축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드라이아이스, 식음료용

탄산, 용접·절단, 폐수처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활용된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과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여수 1·2공장 플레어스택(가스 소각용 설비)에 발열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광양물류센터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해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허가 건설팅을 진행 중이다. CHP 설비에는 가연성 가스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해 사고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상반기 신규 공장 가동과 함께 친환경 리사이클링 공정을 도입했다. MDI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염소와 가성소다 등으로 환원해 재사용함으로써 원재료 자급률을 높이고 폐수 발생을 줄였다. 바이오 납사와 재생 메탄올을 원료로 활용한 MDI 제품 생산 가능성을 입증하며 ISCC PLUS 국제 인증을 유지 중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